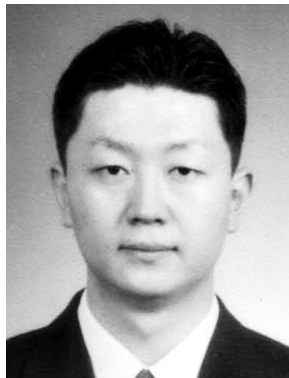


닭고기 수입추이와 향후 전망

## 수입 닭고기 시장은 주식시장과 같다

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이다. 긍정과 희망이라는 어휘는 사라지고, 불안, 절망, 공포라는 손님들이 몰려왔다. 단지 큰집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집에서 이렇게 망연자실한 상태인지 안타깝기만 하다. 먼 나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쟁이들의 탐욕에 기인해서 대다수 이웃나라들이 공포에 떨며, 안정을 고대하고 있다. 그러나 어찌면 이것이 시작인지도 알 수 없다.

수입육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. 지나친 탐욕으로 수입물량은 늘어났고, 설상가상으로 환율 폭탄에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. 국제 계육가격의 추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.



**박진호**  
(주)메리트무역 대표이사

닭고기 무역상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상반기까지는 표정관리를 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. 국제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, 국내 재고 또한 적정치를 유지하고 있어, 부산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들은 도착하는 대로 곧잘 팔리곤 했다. 모두가 행복했던 시기였고, 무역상들은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했다.

### 1. 과도한 탐욕의 시작

서울 한복판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었다. 모든 마스크는 AI를 집중보도하기 시작했고, 일간지는 AI 관련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. 소비자분들은 불안해

국제  
가격  
추  
이

추이기간 : 2007년 08월~2008년 08월 선적분(약1년)

국제계육가격 : 1,200/MT 에서 1,900/MT 으로 꾸준히 상승(약60%인상)

표준제품 : 미국산 점보장각(Jumbo Whole Legs, 300gram up/pce)

인상요인 : 곡물가격 급등, 유가급등, 선박운임 및 제비용 상승 등

수입물량 : 약 55,000톤(월6,000톤)



했고 소비는 80% 까지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. 영업 담당자들은 세일즈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, 수개월 동안 판매량은 50% 이상 줄었다.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또한 탐욕이 싹트는 시간이기도 했다. “많은 닭들이 살처분 되었고,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으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내 닭 값은 폭등할 것이다.” 라고 일부 무역상들은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고, 자의반 타의반 쇠고기 수입업체들 또한 닭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했다.

그 탐욕의 결과가 지금이다. 하반기에 부산항에 도착한 물량들은 대부분 큰 손실을 가져다주었고, 원가보존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.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, 환율은 폭등했다. 저점대비 고점을 비교해 보면, 지난 3개월동안 46%의 변동이 있었다. 이만 저만한 손해가 아니다.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까지 악화되었다. “어떻게 하면 원가에 근접해 판매할 수 있는가”가 무역상들의 고민이며, 이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무역상들이 늘고 있다.

## 2. 향후 전망

기존 무역상들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. 이번 겨울이 마지막 ‘닭장사’인 업체들도 보인다. 국제가격과 환율변동 그리고 질병발생까지 모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.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

### 1) 국제가격

꾸준히 떨어지고 있다. 미국산의 경우 고점대비 20%가 떨어진 상태이며, 중국과 러시아의 구매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. 러시아는 위생상태 대다수의 계육제품을 수입 금지했고, 올림픽이 끝난 중국의 구매는 좀처럼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.

브라질산의 경우도 고점대비 약 22%가 떨어진 상태이나, 한국으로 입항되는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인도와 검역협정을 체결시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이다.

### 2) 환율변동

아이러니하게 큰 폭의 환율변동이 기존 무역상들을 지켜주고 있다. 미국과 브라질 가격이 20% 이상 떨어졌으나, 환율변동은 큰 방파제 역할을 하며, 기존 재고의 손실을 방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. 연말에 환율이 1,000원대로 안정화 된다면 많은 물량이 일시에 수입되어 자칫 시장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.

### 3) 질병발생

AI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30%의 소비감소는 불가피하다. 독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가 어느 지역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국제가격의 크게 요동칠 수 있고, 한국에서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.

### 3. 결 론

4/4분기 수입육 시장은 한마디로 주식시장과 같다.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. 러시아는 위생 상태를 근거로 미국산 계육을 금지했지만 정치적 이유라는 것이 더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고, 5% 마진을 얻기 위해 수입

을 하는데 30%의 환율손실 방파제가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.

충남 예산의 경우 저병원성이라지만, 올 겨울은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. 또한 막강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쇠고기 업체들이 닭고기 시장을 겨냥하며, 적극적인 진입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기도 하다.

자연은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계육시장도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것 같다. 지나치게 탐욕을 부린 업체들은 올 겨울에 사라지고, 시장 환경에 순응한 업체들에게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해줄 것이다.

쉬우면서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'계육시장' 이 아닌가 싶다. **양계**

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

# 자동화계사 청소대행

## 원적외선 산업

(맥반석, 견운모, 목초액)

---

**동광축산컨설팅(구,동광공업)**  
 대 표 : 최 성 태  
 휴대폰 : 011-374-8461~2

사무실 :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
 전 화 : (055)374-8461~2  
 팩 스 : (055)375-8461